

5. 목사님 같은 분에게 경어를 쓰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워요.
〈함즐함울〉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에 배포되므로, 모든 보도기사, 논설, 칼럼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6. 해마다 구성과 편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함즐함울〉의 편집진은 교회의 다른 기관과 같이 2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선교사이면서 신문이므로 중립성과 균형을 가져야 하며, 한편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보면, 편집진의 개성에 따라 지면 편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원고를 보냈는데 너무 늦게 실렸어요.
지면의 한계로 때로 시의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기사나 기고를 늦게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글은 되도록 보내주신 그대로 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문의 특성상,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기준을 반영해서 고칠 때도 있습니다.

8. 〈함즐함울〉이란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함즐함울〉 100호에 실린 김화수 목사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이 이름은 이재철 목사 혹은 이희숙 권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9. 용지 색깔이 어둡고, 인쇄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교회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해 거의 모든 발간물에서 재생지를 사용합니다. 재생지의 특성상, 표백 과정을 거르기 때문에 용지가 밝지 않고, 인쇄 후에도 색깔이 좀 어둡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한 번에 몇 부나 발행하나요?
보통 2,000부를 발행합니다.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가 대략 5,000명이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11단계 성경공부 마쳐

- 12단계 성경공부의 실질적인 종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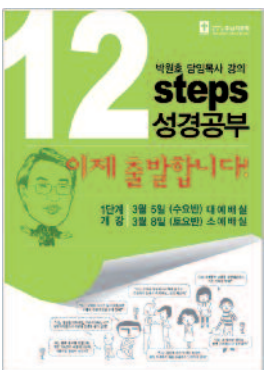
1,876명이 참여한 4년의 대장정 지난 2012년 3월 28일,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는 조촐한 예식 하나가 진행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2008년 3월 5일 시작해서 4년에 걸쳐 진행해왔던 ‘12단계 성경공부’의 11단계 종강일이었다. 하지만, 2012년 4월부터 시작되는 12단계가 성지순례로 기획된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8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던 이날은 12단계 성경공부의 실질적인 종강일인 셈이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수요일반, 토요일반, 인터넷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3개월 과정, 8~10과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출석카드 및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석관리와 함께, 엄격한 과제 및 기말 테스트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해왔다. 그동안 1,876명이 참여했으며, 어느 한 단계 이상 수료한 성도는 1,615명, 10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수료한 성도는 408명으로 집계되었고, 11단계까지 수료한 성도는 4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수료식은 5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신학 체계를 정립 이날, 지난 4년 동안 강의를 진행해 온 박원호 담임목사에게 조촐

한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박목사는 “1998년 장신대 교수 시절, 서울 영락교회의 성경교재 개발을 맡았던 이래, 체계적 성경공부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미국 디트로이트 한인 교회에서 기초하고, 주님의교회에서 비로소 완성한 오랜 꿈이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목사는 이 성경공부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신학의 체계를 정립했으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사역 전체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뒤이어 진행해야 할 수 많은 사역들 12단계 성경공부가 지식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것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수친구사역은 바로 삶을 통해 지식을 삶으로 이어주는 제자화 프로그램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회 내 성경공부를 이번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쌓여진 ‘12단계 성경공부’의 교재는, 내용을 보충하여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며, 국제교육센터를 통해 번역판을 개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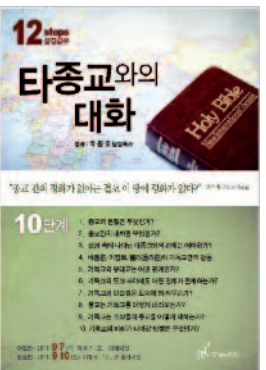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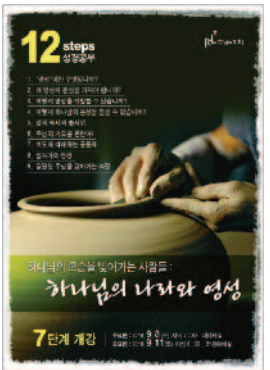
교지의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소년과 청소년에 이르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성경공부 과정을 개발하고, 예수친구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박목사의 말이다.



12단계 성경공부 연혁

2008년 1월: 12단계 성경공부팀 발족

- 1단계 (2008.3.5.~6.14.):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 2단계 (2008.9.3.~11.19.):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 3단계 (2009.1.7.~3.28.): 구원의 여정을 따라
- 4단계 (2009.5.6.~7.29.):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 5단계 (2009.9.2.~11.25.):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 6단계 (2010.1.6.~3.31.): 엘리모로의 초대
- 7단계 (2010.9.8.~11.24.): 하나님의모습을 빚어가는 사람들
- 8단계 (2011.1.19.~4.13.): 이제는 삶입니다
- 9단계 (2011.5.25.~7.27.): 신앙의 지평을 넓혀라
- 10단계 (2011.9.7.~11.30.): 타종교와의 대화
- 11단계 (2012.1.11.~3.28.):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 12단계 (2012.4.17.~5.4.): 성지순례 *3개팀 총181명 참가예정



교회소식 이모저모

농어촌 교회를 다녀와서



3월 23일과 24일에 국내선교 농어촌교회 팀에서 지원하는 5곳의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였다. 충남 보령 성광교회, 땅끝 마을 해남 토말 교회, 그리고 완도에 있는 달도교회와 갈문리 교회를 다녀왔다. 방문을 하며 예배를 같이 드리며 지방 교회 농어촌 교회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쉽지 않은 목회 현장들, 젊은 신도들과 청소년들은 거의 없고 어르신 가정만 몇 곳 간혹 청소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선교와 예배에 필요한 물품 부족을 호소하였다. 2012년 농어촌 선교팀에서는 사업 계획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어촌 교회 지원의 한 방법으로 농어촌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 집에서 보이지 않는 농촌청소년들이 필요한 각종 도서와 중고 컴퓨터와 여러 악기들(피아노, 드럼, 플루트, 색스폰, 기타, 전자オル간 바이올린 등)을 수집하여 후원하기로 하였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64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후원을 바란다. 선교팀에서 지원하는 교회와 기관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공한 농촌 교회의 체험장 방문을 하여 특강 및 체험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농어촌교회와 함께하는 비전캠프'를 4월 13일과 14일 경남 거창의 대산교회에서 개최를 한다.

(연락처: 농어촌 교회 팀장: 최재규 안수집사 Tel 010-7760-0233)

주님의 주신 빛과 소망 바라보기를
(3월 새신자 환영회에서)

2월과 3월에 새신자 등록자 환영회가 새신자 80여명이 참석하여 3월 25일 지하식당에서 드려졌다. 10개 교구로 나뉘어진 교구별 탁자에 앉아 교구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의 인

사와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교회 한 식구가 됨을 감사드렸다. 박원호 담임목사

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교회의 자랑과 자신의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말씀하시며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빛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앞으로의 시간들 함께한 새신자들 모두에게 크신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길 바랐다.

제 1여선교회 4월 월례회



- 제 1여선교회 4월 월례회가 4월 4일(수)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유기영 목사는 율기 말씀을 통해 '이제는 눈으로'라는 말씀으로 교회 밖에서 비난을 받는 기독교인

들의 잘못된 신앙의 현실성과 진정성을 제대로 인식해 올바른 영혼과 믿음과 신실한 마음속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고 바라보기를 바라며 교회에서 제일 큰 어머니와 할머니로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배 후 김양자 장로의 아로마 테라피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아로마의 효능을 배웠다. 제 1여선교회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교우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며 매월 몇 곳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앞서 가기를 기도했다.



PCL Cartoon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復活節(부활절)禮拜(예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20)

復活(부활)의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남. 甦(쇠)하였다가 다시 일어남.

復活節(부활절) 禮拜(예배)의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復(회복할 복, 다시 부): "많은사람, 견다"를 뜻하는 𠂔(자축거릴 척, 중인 변)에 "거듭"을 뜻하는 𠂔(되풀이할 복)이 결합되어 "갔던 길을 되풀이하여 걸어 오니 옛 지위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活(살 활): 水(물 수)의 변형체 (삼수 변)에 舌(혀 설)을 결합하여 "목마른 자가 물이 혀에 닿으니 살아난다"는 글자가 되었다.

★節(마디 절):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즉)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뜻도 있다.

★禮(예도 례): 제기, 제사, 神(신)을 상징하는 示(보일 시, 제사 시)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豐(풍년 풍)을 결합시켜 "신전의 쟁상에 제물을 풍성히 차리고 제사 지낼 때 엄격히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가 예도이다"라는 의미의 문자이다.

★拜(절할 배): 手(손 수)를 좌우에 배열하여 양쪽 손을 나타내었고 下(아래 하)를 밑에 배치하여 "양손을 아래로 가지런히 모으고 엎드려 절 한다"는 글자를 만들었다.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오늘의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_ 롬 1:4

통 권 _ 제 300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4월 8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롬6:8-13)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허황되지 않고 참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이 땅 위에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처럼 부활의 몸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맞이하는 다섯 번째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절기를
다소간 소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온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드라마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몸소 참여하는 가운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라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12년 부활절 아침
담임목사 박원호

주간 목회력

<부활절 칸타타>

- 4.11(수) 오후 7:30 / 대예배실
<전반기입교 및 세례식>
- 4.15(주일) 4부 예배시

<정기제직회>

- 4.18(수) 수요일예배후 / 대예배실
<정기당회>
- 4.15(주일) 오후 3:30 / 대예배실

<교구 대항 피구대회>

- 4.15(주일) 1~5교구
- 4.22(주일) 6~9교구
- 운동장 / 4부 예배후

부활절 특별예배
새 생명을 주신 예수그리스도

부활절, 새로운 삶의 시작

-예배드라마를 통해 다시 살펴보는 절기의 뜻

금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기쁨의 50일’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부활절 달걀과 찬양대의 칸타타 정도가 아닐까?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가장 큰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부활절 자체에 대한 축제의 전통은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행로를 따르고, 고난 주일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고자 금식과 기도로 함께 하였던 기억이, 부활절의 기쁨을 억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전통을 되짚어 보면, 부활절은 기쁨과 축제의 출발점이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정해 지켰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행적을 따라 가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음미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슬픔과 회개의 상징인 무릎 꿇음도 자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금식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랜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활절 축제가 다양한 문화적 양식으로 지켜져 오고 있다.

교회력의 출발은 부활절일까, 대림절일까 교회를 이루는 바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경과 전통이다. 성경의 중요성은 모든 교회에서 공감하지만, 전통은 그 사회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교회력’은 기독교 전통의 표상으로, 하나님인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한 해의 절기를 통해 기억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은 당연히 교회력의 핵심이 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력은 기원후 4세기경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초대 교회 교인들의 삶과 믿음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은 반면, 8세기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대림

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는 신학적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인데, 부활절과 성탄절이 교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다. ‘대림절-성탄절-주현절’ 절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라면, ‘사순절-부활절-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재림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절기이다.

절기의 회복을 위한 작은 초석, 예배드라마 주님의교회의 2012년 부활절은 드라마예배의 형식을 빌린 특별 예배로 드러진다.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전 9시 30분에 1부가, 오후 12시 30분에 2부가 드려지는 이번 부활절 특별예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순간을 온 성도가 배역으로, 스태프로, 찬양으로 함께 경험하는 놀랍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유례가 드문 이번 예배드라마의 기획취지는 절기의 회복이다. 미국과 유럽을 살펴보면 교회를 넘어 한 마을 전체가 부활 드라마를 함께 연출하면서, 부활절을 교회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전통이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이런 형태의 드라마를 시도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으로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교회에서 절기의 회복을 꿈꾸며 예배드라마를 기획하고, 전교인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은, 부활절 절기가 기쁨과 축제의 기간임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보여주는 뜻깊은 사역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는 말씀은, 부활절을 맞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할 비를 잘 보여준다. “기쁨의 50일”의 그 첫날인 부활절,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 목사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기의 회복이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 장경식 기자 >

오감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연습은 항상 기도로 시작되었고, 매 연습 시간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4개월을 한결같이 달려오며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정적인 참여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상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 문제로 일부 장면은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자체가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배드라마 속에는 춤과 노래가 있고, 대화와 외침이 있으며, 놀라움과 흐느낌이 교차됩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의 오감을 열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신실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목격자로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예배 드라마에는 많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용서가 이루어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지난 연습 중에 팔이 아픈 성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아픈 팔을 낮게 해 달라 기도했더니 실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절 예배 중에 치유와 용서, 회복의 현장을 경험하도록 예배 드라마 참여자들은 릴레이 금식을 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우주 전부터 거리마다 연등을 달며 전국적인 기념일로 행사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는 부활절의 경우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지고 교회규모로 기념하는 축소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독교의 주된 절기로 회복함을 선포하고 세상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드라마 예배의 소망은 세대통합에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전 교육부서는 대예배와 동일한 말씀(내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체감을 드라마 예배로 연결하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세대 간에 하나 된 경험과 감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관심과 기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더 넓은 곳에 부활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는 절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김주현 기자 >



어떨 때는 그림 한 점이 책 한권만큼 기억에 오래남는 경우가 있다
비록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곳을 응시하며
괴로워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에서 죽어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가 있으며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 얼굴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 하셨을 마음도 볼수있는거 같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어쩌면 지금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_ 제임스티소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것은'에대한 짧은 글



_ 제임스티소의 '부활'

‘부활’을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내가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옛그제 저녁에 부산에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활절 예배드라마 준비로 한창 분주할 때라 다음에 전화하라고 했더니 잠깐이면 된다고 하셔서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창원의 풍성한 생명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김목사님은 한국의 아름다운 이름을 연구하신다고 하면서 저의 이름을 지은 동기와 한문자를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의 평소 생각대로 제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거나 깊은 뜻을 가진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제 이름입니까?” 그리고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장로교 통합측 총회록에 기록된 목사님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제 이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멀리 창원에서 전화를 주신 목사님을 생각해서 더 이상 자세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말씀드리면 됩니까?”하고 여쭙었더니 “한자로 목사

님의 이름을 뜻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름의 ‘이(李)’자는 전주 이(李)가이고, ‘강(康)’자는 ‘평강할 강’이고, 마지막 ‘찬(讚)’자는 찬송할 자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누가 지었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친히 지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듣고 조금 멈칫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고, 또한 유교에 심취한 분이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 이름을 뜻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장차 목사님이 될 이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아, 참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군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고 하시면서 짧은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엉겁결에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_03

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유교집안에 태어나서 녹록치 않았던 가정과 인생의 대한 깊은 고민으로 방향했던 젊은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저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가정과 여러 가지 고민들로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 기도와 눈물로 채웠던 시간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제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는 자주 깜짝 놀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도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을 대신할 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15: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고백 또한 사도바울의 고백으로 대신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3:12). < 이강찬 목사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펴낸 300호

함즐함을 연혁

1992. 4. 19	〈나눔의 소식〉이라는 제호의 소식지 창간, 11호까지 발간. A4 4면.
1996. 8.	[창간호] 〈함즐함울〉 제호의 선교지로 창간호 발행. 발행인 남녀연합선교회. 격월간. A4 4면.
〈발간사〉 어느덧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마침 남녀 선교회에서 교인들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정말 적절한 나눔으로 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성스럽게 엮어지는 이 지면들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재철, 주님의교회담임목사	
1996. 10.	[2호] 6면으로 증면.
1997. 1.	[4호] 8면으로 증면. 이후 내용에 따라 12면까지 증면.
2003. 4. 20.	[41호] 주간으로 변경. B4 4면. 이때 재창간을 표방하고 통권 1호라 칭함. 편집부장 외에 편집부 기자 10명, 교회기관 기자 7명, 교회학교 기자 7명, 교구기자 6명을 두는 등 역대 가장 규모가 큰 편집진으로 기록됨.
2004. 10. 17	[100호] 통권 100호. 1면 기사는 “수험 자녀 위한 학부모 기도 행진 계속 돼”였음. 2~3면에 100호 특집 기사 수록.
2006. 1. 22.	[159호] PDF 파일로 저장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006. 4. 30.	[171호] 부분적인 4도 인쇄. 이후 흑백과 4도 인쇄를 병행.
2006. 11. 19.	[192호] 이후 [193호] 부터 전면 4도 인쇄.
2007. 1. 7.	[199호] 이후 격주간.
2007. 1. 21.	[200호] 통권 200호. 1면 기사는 “수요예배보다 친밀한 예배 공동체를 경험한다”였음.
2012. 4. 8.	[300호] 통권 300호 기록!

성도들과 함께 한 16년, 문서 선교의 달인!

〈함즐함울〉은 처음, 성도들 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선교지로 시작했다. 이름도 소박한 〈나눔의 소식〉으로 출발한 이 선교지는 11호까지 발간된 후, 1996년 8월 〈함즐함울〉이라는 이름의 선교지로 창간되었다. 이후 격월간, 주간, 격주간으로 발간 간격이 바뀌고, 지면도 A4 크기에서 B4 크기로 바뀌었으며, 초기의 흑백 인쇄에서 컬러 인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다양하게 기획되었던 ‘고정란’ 들

‘대표기도’가 맞을까, ‘기도인도’가 맞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일까? 〈함즐함울〉과월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함즐함울〉에서는 ‘교회 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라는 고정란을 통해 ‘애장남’의 선구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신앙상식’이 연재되기도 했고, ‘성경퍼즐’도 재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가 많은 성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없을 수 없는 수많은 ‘옥의 티’ 들

16년간 300호를 내는 가운데, 실수가 없을 리 없다. 112호는 2006년 1월 23일에 발간된 후, 그 해 1월 30일지에도, 2월 6일지에도 계속 같은 호수로 발간되는 3관왕의 진기록을 수립했다. 219호는 2007년 12월 2일자와 16일자로 두 번 발간되어 아깝게 2위를 기록했다. 덕분에 220

주님의교회 소식지 〈함즐함울〉이 2012년 4월 8일자로 300호를 맞습니다. 1996년 8월 창간되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는 말씀에 따라 성도들과 함께 기쁜 일, 고통일을 함께 해온 16년이었습니다. 〈함즐함울〉 300호와 함께 한 자난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편집자

호는 아예 탄생조차 하지 못한 채 221호가 발행되기도 했다. 267호부터 278호까지는 〈함즐함울〉의 출전이 된 로마서 말씀의 1면 인용에서 ‘롬 12:15’를 ‘롬 12:5’로 잘못 쓰기도 했다. 이 모든 실수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믿는다.

함즐함울에 바란다!

〈함즐함울〉 편집부에서는 지난 3월 25일과 4월 1일에 걸쳐, 〈함즐함울〉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다. 모두 40여 명의 성도가 조언과 충고, 채찍과 격려의 귀중한 의견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함즐함울〉이 있어 좋다는 의견이며, 신앙생활에 도움 되는 글들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많았다. 의견을 주신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담아 주세요.

사역 현장의 생생한 체험들, 멘토가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험담, 고난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사례 등을 다루어 주세요.

소식과 정보를 다루어 주세요.

주일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은 함즐이 교회를 이해하는 소식통이에요. 교회 안의 현안들과 정보들과 같은 여러 소식을 빨리, 많이 전달해 주세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려 주세요.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이 읽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주세요. 성경 만화와 같이 재미있게 구성되면 더 좋아요.

이런 내용은 참 좋아요.

‘땅끝편지’는 성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어 참 좋아요. 영의 회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한자로 풀어보기’도 재미있어요.

함즐함울에 대한 10문 10답

〈함즐함울〉에 수록되는 내용은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알아야 하는 것,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교회 사역과 행사,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 신앙 간증과 기독교 교양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나이 모든 글들이 〈함즐함울〉에 게재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함즐함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1. 교회신문으로서 수록되는 내용에 특별히 기준 삼는 것이 있나요?

기도와말씀을 바탕으로 했는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특정한 개인이 강조되거나 중심이 되는 글은 아닌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2.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하는 게 있다면?

제목과 본문의 일관성이 있으며, 그 한 기사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추측과 짐작에 의한 글은 아닌가,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취재원에 근거한 글은 아닌가, 일방적 시각에 근거했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한 글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3. 가끔 너무 어렵고 학문적인 용어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어, 새신자반 교육을 받은 18세 이상의 성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함즐함울〉의 기사 작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신학용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때로 성경에 나오는 말도 어려울 때가 있더군요.

4. 성경 말씀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주님의교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1998)에 따릅니다.

〈다음면에 계속〉